

## 제5과 포도원비유

이사야5:1-30

이사야5장에서 이사야는 포도원비유를 설파한다.

1-4장까지의 예언에 대해 결론을 짓는 내용으로 구성된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한 주인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깊이 파고, 돌들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모종을 심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포도나무를 가꾼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원두막을 세우고 포도를 따서 저장할 장소와 포도즙을 짤 틀까지 준비한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무슨 일인지 들포도만 맺는다. 이에 주인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라고 하며 마침내 울타리를 걷고 망대를 치워 들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방치한다.

①.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유다를 상징한다.

7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유다에게 기대하신 정의(히:미쉬파트)와 공의(히:체다카)라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 지 묵상해보자.

※정의와 공의는 모두 재판에 관련된 단어로 미쉬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며, 체다카는 재판에서 의롭다고 판정받는 것을 말한다.

②. 하나님은 하늘법정에서 재판을 열어 유다가 열매 없는 이유를 찾는다. 하나님은 이 재판에서 유다에 공의의 열매가 없는 것이 유다의 죄 때문임을 아시고, ‘호이’라고 하는 여섯 번의 탄식을 발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범한 언약 파기죄를 고발하시며 심판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호이’를 ‘화 있을 진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본래 뜻은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죽음을 애도할 때 쏟아내는 '아이고'에 해당한다.

③. 8절-10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탄식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유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A. 유다가 범한 죄

B. 유다가 받게 될 심판

④. 다음 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6번 탄식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유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정리해보자.

	유다의 죄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탄식(8-10)		
두 번째 탄식(11-17)		
세 번째 탄식(18-19)		
네 번째 탄식(20)		
다섯 번째 탄식(21)		
여섯 번째 탄식(22-23)		

5. 언약법정에서 유다가 언약파기죄를 범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범한 죄를 하나씩 열거하시면서 여섯 번이나 “호이”(화 있을진저)를 외치시며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유다는 날리는 꽃잎같이 불타는 그루터기 같이 비참한 존재가 된다.(25절) 그리고 결국 유다가 앗수르에 의해 완전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는 심판을 선고하시기에 이른다.

26절-30절을 읽고 유다가 맞게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묵상해보자.

6.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참하다. 무너지고, 죽고, 잡혀가고, 그런 후에 십분의 일이 남아 있을 지라도 그것마저 베임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으로 유다를 파멸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유다의 부정함을 제거한 후 남은자들을 통해 다시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

이사야 6:13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찾으시는 남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지 묵상하며 오늘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